

96. 내가 향해 할 방향키를 가져갈 수 있게 해줘...

죄를 그만 짓고 은혜의 밭줄을 잡아.

2015.07.17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유튜브 가족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이번 주는 흥미로운 한 주였어요. 저는 집 주변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당을 포함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의 보급자리를 만드는 일에 빠진것 같았어요. 그것은 저를 산만하게 만들었고 저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진짜, 정말로 이것을 멈춰야해요. 제가 애통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나는 너가 느끼는 것을 알고 있어. 이것들은 너가 곧 멈춰야 한다는 경고신호들이야. 나의 소중한 천사야, 이번주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온 마음을 다해 나에게 다시 집중해라. 너는 회복하고 되찾을 거야. 그것을 지금 끝내라.

(클레어) 그리고 저는 지난 이틀동안 끊임없이 저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어요. 주님, 모든 사람들이 제이드 헬름(군사훈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특히 저도 궁금해요. 오, 제 호기심이 얼마나 심한지 주님도 아시잖아요!

(예수님) 나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너를 호기심에서 멀어지게해. 내사랑아, 너가 알아야할 필요가 있을때 너가 알아야할 것을 알게 될 거야.

(클레어) 그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대답같이 들려요.

(예수님) 맞아,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어. 너의 초점은 끊임없이 나에게 있어야해. 다른 곳에는 잘못된 정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쓸데없는 초조함으로 나에게서 너의 주의를 훔치려는 두려움과 음모의 악마들이 있어. 나는 너의 생각이 천국의 구름속에 있기를 원해.. 알겠어?

(클레어) 주님, 구름속에 있는 것 같이 헛갈려요.

(예수님) 아주 웃기네.. 하지만 진지하게 나는 너가 세상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해. 계속해서 나는 너에게 이것을 말했어. 나는 이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너의 호기심이 너를 불타오르게 만드는 것을 알아. 하지만 만약 너가 호기심을 죽이면 그것은 너를 내버려두게 될 거야.

(클레어) 확실해요 주님? 제 뜻은, 저의 호기심은 매일 강해지고 있어요.

(예수님) 너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었기 때문이야. 너는 그것을 자라게 하였어요. 나는 너가 알아야할 필요가 있을때 너가 알아야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어. 그때까지 나는 너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나의 일에만 몰두하여 일을 진행하기를 바래. 내 사랑아,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제발?

(클레어)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로 저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고 그것은 나의 일이야. 그들이 해야할 일은 그들의 눈을 나에게 두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온 마음으로 나에게 영예를 주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구출할 거야.

‘그가 나를 사랑하므로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시편91장14절)

그 동안에 나에게 들어올려지도록 그들의 어둠을 비출 빛이 필요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려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나의 마음은 그들을 그들의 적들과 그들 자신에게서 구원하는 것에 있어.

그들이 스스로 판 구덩이는 깊고 어두워. ‘당신이 그 구덩이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파는 것을 멈추세요.’ 라는 말처럼 나는 죄를 짓는 것을 멈추고 은혜의 밭줄을 붙잡으라고 말해. 나는 너희들의 삶에서 지금 그 밭줄을 내리고 있어. 이 깊은 어둠에서 나와 태양이 너희들을 비추게 해라.

나는 너희들에게 줄 새로운 삶을 가지고 있어. 이 삶은 선물들과 도전들로 가득차겠지만, 이전의 너희들의 삶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지는 않을 거야. 이 삶은 너희들의 존재의 핵심을 말해주는, 너희들이 한 번도 가져본적이 없는 평화, 목적의식, 운명의식을 가져다줄 거야. 그래, 나는 너희들을 기다려왔어. 나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버리고 나에게 올 그 특별한 날을 위해 이 모든 선물들을 가지고 기다려왔어.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이 원했던 모든 것은 이 새로운 삶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은 준비를 해야할 것이지만, 너희들의 이전 삶과 같이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허무함과 상실감이 있었어.

더이상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나에게 속하고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의도한 영광스러운 창조물로 너희들을 빚으면서 사랑하고 안고 돌보아야 하는 나의 것이 될 거야. 너희들이 고군분투했던 것들은 사라지고, 너희들이 갈망했던 것들이 너희들을 감쌀 거야.

나를 위해 너희들의 삶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의 안전이고 피난처야. 나는 너희들이 삶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꿀 거야.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때, 심지어 너희들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때에도 나는 그 모든것을 너희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불렀지만 너희들이 떠나가버린 모든 때를 되돌아보게 될 거야. 그래, 내가 너희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였어. 너희들은 떠나가버렸고, 언젠가는 너희들이 너희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받아들여 내가 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쏟아부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나는 기다렸어.

그래서 다시 우리는 여기에 있고, 마침내 너희들의 삶에 반드시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느꼈어. 그래, 이것은 필수적이야. 너희들은 거친 바다를 향해할 수 없을 것이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암초와 상어들을 피할수 있도록 내가 방향키를 잡을 수 있게 해줘. 내가 너희들을 위해 계획한 안전한 피난처로 너희들을 데려갈 수 있게 해줘. 너희들의 여정은 길겠지만 결국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이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아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지 의아해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해놓은 경이로움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어. 우리는 이것을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은 절대로 다시 혼자 걷지 않을 거야. 나는 모든 상황에서 나의 손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줄 것이고, 너희들이 나에게 손을 뺄 수 없을때, 내가 너희들을 나의 품에 안아서 갈 거야. 나는 이것을 너희들이 태어난 바로 그 순간부터 계획하였어. 바로 그 날부터 나는 너희들이 집으로 데려오기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어. 나는 너희들이 길을 잃고 적들에게 포로로 잡힐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손아귀에서 너희들의 구출을 계획해 놓았었어.

나는 또한 너희들을 위해 정의의 아름다운 옷을 짰어. 너희들은 은혜와 아름다움으로 옷을 입고 너희들의 안에서부터 새벽의 태양처럼 빛나게 될 거야. 오, 그래, 나는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멋진 것들이 있어. 우리가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음울하였는지 알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삶과 다시는 연관되어지고 싶어하지 않을 거야.

게다가 너희들은 새로운 삶에 너무 몰두하여 과거에 대한 시간을 가질 수 없을 거야. 나는 너희들의 이전의 삶의 어떠한 것도 너희들에게 붙어있지 않도록 너희들을 깨끗하게 씻겨줄 거야. 아니, 너희들은 매일 나의 무덤 안에서 씻겨지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거야. 그래, 심지어 너희들의 눈에 있는 비늘들도 벗겨질 거야. 너희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거야. 너희들이 바라보는 곳마다 새벽녘의 상쾌함이 너희들을 둘러쌀 거야.

이제 와서 나의 손을 잡아라. 내가 너희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줘라.
너희들이게 더이상 부끄러움은 없을 거야. 알겠어? 나는 모든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십자가에 못박았어. 나의 피에 의해서 너희들 모두는 내면이 아름다워졌고, 이제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 나의 사랑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울 거야. 정의,
순결, 찬양 및 경배의 기둥은 겸손의 지붕을 지탱하기위해 세워져 너희들의 내면의 삶을
영원히 보호할 거야.

날마다 생명의 물은 너희들의 내면에서 자유롭게 흘러 세상으로 나가서 여전히 그들의
구렁이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의 길을 가르칠
것이고 너희들은 상처받는 세상에 나의 사랑의 대사가 될 거야. 이제 우리가 내 안에
너희들의 새로운 삶을 세웠으니 나는 너희들이 안식하기를 원해. 그래, 안식. 너희들의 삶은
지금 내 안에 숨겨져 있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되. 기록해지려고 노력하고,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감명을 주려고 노력하고.. 아니, 이제 그것은 끝났어. 모든 것들은 나에 의해서
너희들을 통해 이루어질 거야. 내가 움직이기를 기다려라. 나의 영의 바람을 잡아라. 나의
인도에 따라 흘러가라.. 내가 방향키를 잡고 나의 영이 뜻에 힘을 실어 우리는 함께 이 새로운
삶을 살것이고, 우리는 함께 마침내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거야. 영원한 생명의
기슭으로.